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 | | | | | | |
|--------|------|-------------------|------|----------------------|----|-----------------|
|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다니엘 예언서 12:1-3 | 제2독서 | 히브리서 10:11-14, 18 | 복음 | 마르코 13:24-32 |
|--------|------|-------------------|------|----------------------|----|-----------------|

재림 (再臨, 齋任, 다시 오심,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말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총 주시려 우리를 불러모으신 하느님은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예고하시며, 그때에는 분명한 하늘의 징표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나타냅니다. 즉,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실 것이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그분의 도래는 재앙이 아닌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새싹이 돋으면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아는 것처럼, 단순히 종말의 순간과 시간을 알아차리라는 것을 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기에 날마다 충실히 살며 그 끝의 순간에도 놀라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개별적으로 대면할 것이고, 그 만남으로 우리 각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명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종말을 겪어보지 못했으며, 죽음을 겪고 지금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이를 명확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이 세상 삶의 끝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간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그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말에는 이 세상의 순리와 질서를 역행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징표가 나타날 것이며, 이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을 때, 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내 마음에 사랑을 흘려넘기도록 담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랑 넘치는 일들 많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일 자 | 전 려 력 | 미사시간 |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 |
|-------------|---|-----------------|--------------|---------------------|
| 11월 19일(화) |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 오후 7시30분 | 주일헌금 | \$ 1,157.00 |
| | | | 교 무 금 | \$ 4,150.00 |
| 11월 20일(수) | 연중 제33주간 수요일 | 오전 8시 | 성 물 방 | \$ 72.00 |
| | | | 자 선 비 | \$ 55.00 |
| 11월 21일(목)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 오후 7시30분 | 성소후원 | \$ 115.00 |
| | | | 도네이션 | \$ 915.00 |
| 11월 22일(금) |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 오전 10시 | 기타 | \$ 235.00 |
| 11월 23일(토) | 연중 제33주간 토요일 | 오후 7시30분 | 합 계 | \$ 6,699.00 |
| 11월 24일(주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 오전 9시 오전 11시 | 미사참례자 | 학생: 21명 성인: 145명 |
| 교무금 봉헌자 | 박병수.김팔봉.김길록.이의웅(11-12)김근수.이미자(10-12)김기환(7-12)김도철(8-10)원영일(8-9)윤준호 권영일.김우영.전우성(11) | | | |

전대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대사(全大赦)는 대사의 한 종류입니다. 용서, 관대함 등을 뜻하는 원래 라틴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말 그대로 ‘크게 용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예전에 이런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잘못하고 온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던 날 밤, 종아리를 맞았던 그 글쓰이는 아픔으로 아직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머님께서 아이가 이젠 잠들었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인지 조용히 들어오시더라고요. 잠자는 척하고 있었으나, 어머니께서 꼭꼭 눌러 담은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 자국이 선명한 종아리에 약을 정성껏 바르시는 손길을 글쓰이는 충격적으로 느껴야 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훈육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요즘이지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요? 아이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칼을 가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만, 아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길 바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일 테죠. 죄는 기꺼이 용서하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잠깐의 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잠벌(暫罰)이라고 부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 자체는 용서받더라도 잠벌은 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보속’을 정성껏 하며,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벌과 관련하여 교회 역사 안에서 ‘대사’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죄짓지 않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죄지는 교우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초리를 세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죄지는 형제를 잠시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교회의 공식 예절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 중 다른 교우들은 그 형제를 위해 기도와 고행, 선행으로 그 형제가 용서받길 하느님께 청하며, 죄지는 형제의 보속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을 위해 교우들이 대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타인의 잠벌이 지나가길 청하며 기도해 주는 전통이 있었으니, 이것이 ‘대사’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벌을 위해 대신 희생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상의 수많은 성인들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 공로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대사’를 통해 교우들이 잠벌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초대교회의 전통과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대사’의 은총을 양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잠벌의 일부가 경감되는 ‘부분 대사(한 대사)’에 반해, 잠벌 전체를 용서받는 대사를 일컬어 ‘전면 대사(전대사)’라고 합니다. 단, 잠벌의 효과가 무의미하게 희석되지 않도록,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도와 선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 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파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 ② 대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며
- ③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1) 고해성사와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매일 미사에 수록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쳐도 되며, 그 외 다른 기도를 해도 됩니다.)를 바쳐야 하며, 그 외 그때그때 전대사의 은총이 선포될 때 제시되는 선행을 수행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20일, 서울주보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전례부장 916-990-6531 / 사무장 909-573-5322)●

| 구분 | 지향 | 봉헌자 | 구분 | 지향 | 봉헌자 |
|----|----------------------|------------|----|----------------------|----------|
| 연 |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 서국은 바오로 | 생 |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 조윤희 밀지다 |
| 연 |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 김순녀 도미질라 | 생 | 아들 Shawn Hovey 영육건강 | 김평옥 모니카 |
| 연 | 김병길 베드로 영혼 | 김명희 수산나 가족 | 생 | (생일) 윤재경 알베르도 영육건강 | 윤은실 비비안나 |
| 연 | 한오임 소피아, 정황자 세실리아 영혼 | 이나숙 데레사 | 생 | 창조주의어머니 Pr. 단원들 영육건강 | 창조주어머니Pr |
| 연 | 이영일 영혼 | 김임직 빅토리아 | | | |
| | | | | | |
| | | | | | |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1. 본당 사목회

일시: 24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 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교구 2차헌금

일시: 17일(주일) 모든미사
목적: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3. 구역모임 및 단체활동

17일(주일): 교중미사후
5구역(데레사방) 7구역(마태오방)
8구역(요한방) 9구역(루카방)
23일(토): 6구역 오후5:30 김상범 히지노(덕)
복지부: 17일(주일) 오후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30일(토) 오후3시 홀리스음식준비/모임
연령회: 12/1(주일) 교중미사후 사무라이 (송년모임)

4.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미사 안내

28일(목)~29일(금) 이틀간 평일미사 없습니다.
*** 30일(토) 특전미사는 있습니다.

5.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모공소) 미사

일시: 12/1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여성부/여성단체

6.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12/1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 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매일미사책 연간 구독 신청 (2025년)

가격: (대)\$120/1년 (소) \$84/1년
- 책값, 물류비 등 가격 인상시에는 차액을
납부하셔야 계속 구독이 가능합니다.
문의: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8. 정혜도서관, 신간 도서 안내 (교육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4가지 작품
도서명: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대출 가능 일자: 17일(주일)부터
대출 조건 : 1인 1권 1주일간 대출 가능

9. 사랑의 급식 안내

1) 11월 17일 (주일): 10구역

메뉴: 카레 금액: \$5

2) 11월 24일 (주일): 김명희 수산나

9/24 선종하신 김병길 베드로 형제님의
유가족(김명희 수산나 가족) 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점심을 제공합니다.

10.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915 (이미자 미카엘라)

◎ 복사단 상시모집중: (문의) 복사단장 장현철 엘리야

◎ St. Mary Cemetery 한국세션 Promotion 안내

기간: 10/27~11/30 까지 (5주간)

문의: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화답송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 | | | | |
|------|------------------|------------------|---------------|---------------|
| 전례봉사 | 연중 제33주일 (11/17) | 그리스도왕대축일 (11/24) | 대림제1주일 (12/1) | 대림제2주일 (12/8) |
| 미사해설 | 김아영 / 김진영 | 박문교 / 정미정 | 곽유경 / 조용주 | 지혜진 / 김진영 |
| 독서 | 9시 | 허준희 / 김가윤 | 제임스 / 윤지명 | 지마리 / 임가빈 |
| | 11시 | 윤재경 / 윤은실 | 임정남 / 양방림 | 안강순 / 이서향 |
| 복사 | 9시 | 지마리 / 임가빈 | 김노아 / 김가윤 | 허준희 / 김가윤 |
| | 11시 | 최준우 / 윤지현 | 김규철 / 최준우 | 송돈희 / 김영준 |
| 헌금위원 | 셋별Pr. | 천상의 모후Pr. | 셋별Pr. | 천상의 모후Pr. |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업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업(바로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부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 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